

# 해방기 국어교과서와 청년담론

— 『중등국어교본』을 중심으로

최 양 우 (부산대)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민족국가 재건의 주역이 갖춰야 할 미덕 |
| II. 민족국가 수립과 국어교육          | 3. 통일된 순수한 공동체로서 민족국가    |
| III. 『중등국어교본』과 청년담론        | IV. 결론                   |
| 1. 민족국가의 토대 구축: 국어와 역사의 복원 |                          |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표는 해방기에 편찬된 국정 국어교과서인 『중등국어교본』을 통해 해방기 청년담론의 구체적 모습을 밝히는 것이다. 해방기에 국어는 민족어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민족정체성과 동의어가 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어교과는 새로운 민족국가 구성원의 양성이라는 임무를 맡았으며, 국어교과서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였다. 이런 전제 하에 이 연구는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글을 통해 당시 정책주도세력이 형성하고자 했던 청년담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글을 살펴보면 당시의 청년담론은 세 가지 방향으로 드러난다. 첫째, 새로운 민족국가 수립의 기초인 전통과 문화를 복원하고자 했다. 이것은 민족어인 국어와 한글, 그리고 민족의 과거인 문화, 역사, 유적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족공동체 재건의 주역이 갖춰야 할 미덕을 제시했다. 『중등국어교본』은 다양한 글을 통해 진취적 성향,

노력, 공동체에 대한 헌신, 사회적 윤리 준수를 강조하고 있었다. 셋째, 민족 공동체를 순수한 단일공동체로 제시했다. 『중등국어교본』은 당시 좌우 이념 대립이란 현실을 무시하고 단일한 민족공동체의 모습만을 청년세대에게 보여준다. 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한 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룬 글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제어: 해방기 국어교과서, 해방기 국어교육, 『중등국어교본』, 청년  
담론, 청년세대

## I. 서론

일제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맞이하게 된 해방은 희망으로 가득한 새 출발을 예고하는 듯했지만 그 실상은 새로운 혼란기의 시작이었다. 민족의 해방을 우리의 힘이 아닌 외세에 의해 맞이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없었다. 이는 일본이 물러간 자리에 점령군이란 지위로 미군이 한반도 이남에 눌러앉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점령군이라는 미군의 위치는 이후 우리 민족이 부딪치게 되는 많은 모순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열망들이 표출되었다. 나라 만들기 에 대한 열망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열망은 바로 교육이었다. 이에 맞춰 당시 창립된 대부분의 정당들은 의무교육을 정강으로 삼았다.<sup>1)</sup> 새로운 나라의 건설은 그 나라의 주축이 될 새로운 세대의 양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식민지 시대에 시행된 ‘동화와 차별’의 교육정책은 해방 후 국가 주도의

1) 김용일, 『미군정하의 교육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9, 59~60쪽.

의무교육에 대한 열망을 부추겼다. 이런 열망 속에서 실시될 교육은 당연히 36년간의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sup>2)</sup> 이런 교육 기조 아래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민족어의 지위에 올라선 국어를 교육하는 것은 당시 교육정책의 제1과제였다. 민족어인 국어는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 즉 민족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상상을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기제였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은 당시 해방기 교육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조선어학회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다.<sup>3)</sup> 이런 상황 속에서 해방 이후 가장 먼저 인쇄에 들어가고 가장 먼저 보급된 국정교과서는 바로 초등 국어교과서인 『한글 첫 걸음』과 『한글초등교본 상』이었다.<sup>4)</sup> 이는 국어가 ‘무너진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것과 새로운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해방기 최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 반영된 결과다.

국어는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국가의 구성원이 될 당시의 청년세대에게 특정한 담론을 주입시키기에 적합한 교과였다. 물론 지배 담론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민이나 국사와 같은 교과가 특정 담론 전파에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교과의 직접적인 담론 전파 방식

2) “도라보건데 三十六년간 우리는 억울하게도 우리의 말을 배우지 못 했고 맞기실은 일본제국주의의 탄압적인 주입식(注入式) 교육을 바더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해방과 광명의 큰 문이 훤히 열리었다. 이 문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오오오 한 새로운 교육침방을 세워 三十六년간 우리를 좀먹어온 일본적 교육방침을 썩러내버리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새 朝鮮當面の重大課題」, 『자유신문』, 1945. 10. 11, 1면.

3) “국민교육의 기초라고 할 소학교 교육에 대하여 조선어학회 이극로(李克魯)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학교 교육은 무엇보다 먼저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하지 안하면 아니됩니다. 어느 나라이고 간에 중학교까지는 국어교육이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 학문을 물론이고 언어를 떠나서는 잇을 수 업슴으로 언어교육 즉 국어교육을 떠나서는 소학교교육 잇을 수 업다고 하겠습니다.” 「言語떠나教育업다」, 『자유신문』, 1945.10.11, 1면.

4) 「군정청 학무국, 초중등교과서 배부 시작」, 『동아일보』, 1945.12.15.(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초등교과서가 나오고 한 달 후에야 초등용 국사·공민 교과서가 배부된다. 「군정청 학무국, 초등용 국사·공민교과서 배부」, 『서울신문』, 1946.1.22.(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은 해당 담론에 대한 반박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데 반해, 국어교과는 특정 담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전파할 수 있어 담론의 전파 역할을 매우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sup>5)</sup> 즉 담론의 형성과 주입이란 점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이를 드러내는 국사나 공민교과보다 국어교과가 더욱 효과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국어가 해방기 제1교과라는 위치를 가지게 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국정 국어교과서인 『중등국어교본』을 통해 당시 정책주도세력<sup>6)</sup>이 형성하고자 했던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중등국어교본』은 광복 이후 교육문화체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국정으로 만들어진 첫 중등교육 교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당시 여러 단체들이 군정청 학무국의 독단적인 편찬에 반하여 문화건설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를 결성하여 학무국에 건의문을 전달한 점은 당시 국정 국어교과서 편찬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음을 보여준다.<sup>7)</sup>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여러 단체들이 있었으나 조선어학회는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조선어학회가 이미 국정교과서 편찬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어학회는 교과서 편찬에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당시 교과서 편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행정기구는 문교부와 조선교육심의회의 제9분과였다. 특히 조선교육심의회는 다양한 교육 관련 현안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군정의 자문기구였다. 조선교육심의회는 총 10개 분과로 이루어져있었는데, 그

5) 차혜영, 「국어 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 1차~4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상허학보』 제15집, 상허학회, 2005, 102쪽.

6) 미군정과 협력했던 이들은 대체로 조선어학회, 진단학회, 그리고 미국 유학파이자 기독교와 연관성이 있으며, 일제 식민지하에서 소극적 저항 노선을 견지했던 이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한민당 소속이었다. 전덕규,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1』, 송건호 외, 한길사, 2004, 59쪽.

7) 「국정교과서편찬연구위원회, 學務局에 건의서 제출」, 『자유신문』, 1945. 11. 7.(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중 제9분과가 교과서를 담당했다.<sup>8)</sup> 제9분과에는 당시 문교부 편수국의 국장 이자 조선어학회 출신의 최현배가 있었다. 이는 『중등국어교본』이 다양한 세력들의 의견을 규합하기 보다는 특정 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담론형성에 기여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이 연구는 해방기에 정책주도세력이 발행한 국정교과서가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필요한 청년들의 모습과 역할을 규정하는 청년담론을 전파하는 매체라는 점에 주목하여, 『중등국어교본』을 통해 정책주도세력이 형성하고자 했던 청년담론의 모습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해방기 국어교육과 관련된 논의들은 대체로 『중등국어교본』의 편찬과정과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진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sup>9)</sup> 그 외에 해방기의 국어 교과에 대한 인식과 국어교과의 지배이데올로기 반영 양상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sup>10)</sup> 이 연구는 『중등국

8) 조선교육심의회 제9분과의 구성원은 조진만, 조윤제, 김성달, 피천득, 황신덕, 월취 중위, 최현배였다. 「조선교육심의회, 9개전문분과위원회 결정, 신교육의 근본 방침 심의」, 『중앙신문』, 1945. 11. 14.(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9) 김태웅, 「신국가건설기 교과서 정책과 운용의 실제」, 『역사교육』 제88집, 역사교육연구회, 2003, 71~97쪽. ; 강진구, 「문학 텍스트의 정진화 과정과 문학권력-미군정기 중등국어 교과서의 선택과 배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41~77쪽. ; 박용찬, 「한국전쟁 전후 현대시의 국어 교과서 정진화(正典化) 과정 연구」, 『어문학』 제91집, 한국어문학회, 2005, 413~435쪽. ; 박용찬, 「한국전쟁 직전 국어교재에 실린 문학텍스트의 구성담론과 국가주의 시선으로의 이동」, 『어문학』 제119집, 한국어문학회, 2013, 223~253쪽. ; 정영훈, 「미군정기 국어 교과서의 편찬 과정 재론 -조선어학회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배달말』 50권, 배달말학회, 2012, 197~222쪽. ; 박용찬, 「국어교재에 넘나든 현대시 텍스트의 경계와 검열」, 『국어교육연구』 제54집, 국어교육학회, 2014, 53~78쪽. ; 문혜윤(2015), 「텍스트의 재발견과 한국 문학의 정진 형성 과정: 해방기 국어 교재를 통해 본 국어와 정진의 형성」, 『우리어문연구』 51권, 우리어문학회, 2015, 73~101쪽.

10) 김혜정(2004), 「해방 직후, 국어에 대한 인식 및 교과 형성 과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8권, 국어교육학회, 129~169쪽. ; 차혜영(2005), 「국어교과서와 지배이데올로기」, 『상허학보』 제15집, 상허학회, 99~128쪽. ; 강진호, 「반공주의의 규율과 "국어" 교과서: 1946~1954년의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 연

어교본』이 특정 담론 전파의 매체라는 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방기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들과 유사한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당시 청년세대를 규정한 청년담론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등국어교본』에 드러난 청년담론을 파악하기 전에 당시 민족국가 수립의 단계에서 국어교육이 가졌던 특수한 위치를 먼저 고찰함으로써 국어교과서가 청년담론을 전파하는 주력 매체였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후 이를 전제로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글들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정책주도세력들이 형성하고자 했던 청년담론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 II. 민족국가 수립과 국어교육

해방기에는 사회 모든 분야가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혼란기를 겪었다.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었다. 특히 교육 분야는 재정적,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당시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맹퇴치 문제였다. 1938년 3차 조선교육령 이후 조선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된 후유증은 실로 막대했다. 해방 직후 성인 문맹률이 79%에 달했다는 것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의 지독함을 보여주는 증거다.<sup>11)</sup> 높은 성인문맹률은 단순히 문자를 못 쓰는 인구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높은 성인문맹률은 이후 새로운 나라가 나아가갈 민주주의 제도 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sup>12)</sup>이었으며, 왜풍

구』 28권, 민족문화사학회, 2005, 352~383쪽.

11) 김용일, 앞의 책, 50~51쪽.

12) 당시 모든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민주주의 실행에 있어 문맹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오천석과 당시 미군 사령관의 고문이었던 언더우드라는 조선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응호, 『미군정기의 한글 운동사』, 성침사, 1974, 199~200쪽.

청산의 장애물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어교육은 해방직후 최대의 교육과제가 된다.

이를 인식하고 있던 미군은 점령 후 곧바로 국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sup>13)</sup> 하지만 당시 국어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주체는 군정이 아닌 조선어학회였다. 조선어학회는 1945년 8월 25일에 긴급총회를 가진 후 급하게 ‘한글 강습’에 나선다. 조선어학회의 한글 강습은 1945년 9월 11일부터 1949년 10월 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었는데, 대체로 수강인원이 100명 내외였으며 많은 곳은 1000명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sup>14)</sup> 또한 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미군정 당국은 단기 교육을 통한 긴급 교원 양성을 시작한다.<sup>15)</sup> 그 외에도 당시 전문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은 ‘문맹 퇴치 학생 봉사대’를 조직하여 문교부의 협력 하에 방학 기간 동안 농촌에서 국어수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이 민중들의 국어교육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국어교육에 대한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고, 이는 곧 국어 교재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진다. 당시 열악한 인쇄 여건과 혼란스런 정국으로 인해 일본어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이런 열망을 부추겼다.<sup>16)</sup> 이와 같은 열망은 초등국어 교재인 『한글 첫 걸음』과 『한글초등교본 상』이 다른 모든 교과보다 최우선적으로 보급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당시 교재보급 성과를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보급된 교재가 한글독본류였다는 점은 이런 열망이 해방기 동안 지속적이었음을 보여준다.<sup>17)</sup>

확실히 해방 직후의 심각한 성인문맹률과 그것이 새로운 나라 건설에 미

13) 국어교육의 시급성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인식은 아니었다. 미군 점령 후 하지 준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 분야에서 “제일 큰 문제가 조선의 국어교육”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 기자회견에서 미군 施政方針을 발표」, 『매일신보』, 1945. 9. 11(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4) 이용호, 앞의 책, 205~213쪽.

15) 이용호, 앞의 책, 218쪽.

16) 이용호, 앞의 책, 49쪽.

17) 당시 교재보급 성과를 보면 45년 9월 1일부터 47년 6월 30일까지 보급된 교재 중 한글독본류는 약 40%에 육박한다. 김용일, 앞의 책, 198쪽.

치는 현실적인 문제는 국어교육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방기 민중들의 국어교육에 대한 열망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열망은 국어가 민족국가 수립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는 측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식민 지배를 당하는 동안 영토와 주권을 잃었고,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정체성 또한 위협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상상하게 만든 것은 바로 국어(こくご)가 아닌 국어(國語)였다. 특히 한글이라는 우리 민족만이 가진 특수한 활자어의 존재는 식민지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상상을 유지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sup>18)</sup>

국어는 해방 후에도 해방 전과 유사하지만 더욱 비중이 커진 역할을 맡게 된다. 해방 후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이었다. 민족국가는 단순히 국민, 영토, 주권만으로 수립될 수 없다. 국가의 구성원들 각자가 하나의 공동체(민족)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가져야만 진정한 민족국가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國語)는 다양한 입말과 글말이 존재하던 사회질서를 붕괴시키고 단일한 언어만을 허용하는 사회질서를 수립함으로써 민족국가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言語의 存在 基盤이 되는 社會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나, 大體로 民族을 本位로 하여 成立되었다. 이 世上에는 同一한 民族으로서 種類가 다른 言語를 使用하는 일도 있고, 그 反對로 民族의 種類가 다르면서 한 가지 種類의 言語를 使用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차라리 例外的 現象이라 할 것이요, 흔히 言語의 種類와 民族의 種類는 一致된다고 보아 큰 틀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民族이란 또 무엇인가.(…중략…)

(마) 共通한 言語를 가진 言語團體다. 例外的事實을 除外하고 單一한 民族은 單一한 그리고 特有的 言語를 使用하고 있다.

以上の 條件을 具備한 것이 한 民族이라는데 틀림없다면, 그中에는 共通한

18) 문자는 단순히 표기법의 문제를 넘어 언어의 규범적 표상의 성립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연숙, 『국어라는 사상』, 소명, 2006, 54쪽)에서 우리의 국어 이데올로기에 한글이란 활자어가 가진 비중은 지대할 것이다.

言語라는 것이 들어 있다. 民族과 言語는 참으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言語는 體驗의 傳達 機關이라, 言語를 紐帶로 하여 民族은 結束되어 있고, 言語는 體驗의 表現 道具라, 言語 속에 그 民族의 ○知와 性格과 力量이 잘 反映되어 있다.<sup>19)</sup>

위의 글은 당시 국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이다. 이 글에서 이회승은 “한 민족은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와 민족이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해방 이후, 언어와 민족이 밀접하다는 전제하에 국어는 민족문화의 핵심이 된다. 이는 곧 새로운 나라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어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國語와 國民性과의 關係를 ○○히 파악하여야 하겠다. 곧 國語로 말미암아 國民精神을 기르며 國民의 品格格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네의 實力을 길러 온누리에 貢獻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 또한 歷史的으로 國語의 國文化運動이 이어져 내려옴과 우리 나라 萬代에 이르는 빛나는 文化를 세움에 유감이 없는 國文化運動의 힘 있는 걸음 걸어야 하겠으며 이런 걸음을 걸을 때 우리 國語는 이전보다도 더욱 우리 겨레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 질 수 없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높고 높은 國民性을 가지는 겨레가 될 줄로 굳게 믿는 바이다.<sup>20)</sup>

민족문화의 핵심이 국어라는 명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위와 같이 국어는 민족정신과 국민성의 동의어가 된다. 이는 국어를 통해 우리 민족 깊숙이 침투한 왜풍을 청산함과 동시에 민족 정체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sup>21)</sup> 결국 해방기 국어는 민족정체성과 동의어가 되면서 민족

19) 이회승, 「國語教育의 當面問題」, 『조선교육』(창간호, 1947.4), 『한국교육사료집성 미군정기편3』, 이길상 외 엮음, 민족정신문화연구원, 1991, 60~61쪽.

20) 박창해, 「새 國語教育의 當面問題」, 『신 교육건설』(창간호, 1947. 9), 『한국교육사료집성 미군정기편3』, 이길상 외 엮음, 민족정신문화연구원, 1991, 574쪽.

21) 이런 인식 하에 국어(國語)는 비도덕적 언어인 국어(こくご)와 대비하여 도덕적 언어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원조의 “일본어 상용 가정이라고 빼기던 집안은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 실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던 악한의 가정이었다”라는 말과 당시 일본말로 훈시한 경찰 간부에 대한 극렬한 비난여론(이우호, 앞의 책,

어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민족어인 국어는 국어교육에 당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민족문화 건설이란 임무도 부여한다.

결국 당시 민중의 국어교육에 대한 열망은 80%에 달하는 성인문맹률만이 아니라, 당시 국어가 가지고 있던 민족어로서의 지위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어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국어교육에 새로운 민족국가 구성원의 양성이란 중대한 임무를 부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어교육은 당시 모든 교과들에 우선하는 ‘제1교과’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 국어교육의 도구인 국어 교과서는 이와 같은 국어교육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도구였다. 특히 당시 문교부 주도로 편찬된 국정교과서인 『중등국어교본』은 당시 정책주도 세력들이 만들고자 했던 새로운 민족국가의 구성원인 청년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Ⅲ. 『중등국어교본』과 청년담론

앞서 살펴보았듯 당시의 국어는 민족정체성과 동의어가 된다. 이로 인해 국어교육은 민족국가의 국민 양성을 위한 교과가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이루어진 중등국어교육은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청년세대 양성이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등국어교육의 교재였던 『중등국어교본』은 해방기에 요구되는 청년세대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물론 당시 중등국어교육은 『중등국어교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인쇄 여건상의 문제로 『중등국어교본』의 공급량은 상당히 부족했고,<sup>22)</sup> 각 지방에서는 지방의 문인들이나 국어학자들이 엮은 독본류들이 교육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sup>23)</sup> 하지

46~49쪽)은 당시 일본어 사용 자체가 비도덕적 행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어(國語) 사용이 도덕률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2) 『중등국어교본』이 완성된 직후 보급량은 고작 24만부에 불과했다. 「초·중등학교용 교과서 24만부 각도에 배부」, 『조선일보』, 1946. 9. 5.(자료대한국사 제1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3) 당시 민간 발행된 문학독본에 대해서는 이순옥, 「광복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

만 이런 독본류들은 당시 지방 세력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중앙 정책을 결정했던 정책주도세력의 논리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방기의 정책주도세력이 형성하고자 했던 청년담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 문교부 주도로 만들어진 첫 국정교과서인 『중등국어교본』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중등국어교본』은 상, 중, 하로 나누어져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교과서처럼 체계적인 단원 구분은 없으며, 하나의 글이 하나의 과를 이루고 있다. 각 과는 글의 제목, 글, 익힘활동이 순서대로 제시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4)</sup> 사실상 『중등국어교본』은 지금의 교과서와 비교하면 교과서라기보다는 독본에 가까운 구성을 취하고 있다.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글의 종류는 설명문, 논설문, 시, 소설, 수필 등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종류의 글을 통해 『중등국어교본』은 청년담론을 교묘하게 청년세대에게 전파했다. 『중등국어교본』이 보여준 청년담론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강조, 둘째, 혼란기 청년이 갖추어야 할 미덕 강조, 셋째, 순수하고 통일된 공동체의 강조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직접적으로 강조된 것은 청년의 미덕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덕목의 강조는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비교적 직접적인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중등국어교본』의 청년담론 3가지는 모두 해방직후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지 않고, 현실과는 유리된 상상을 부추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청년세대들이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기보다는 민족이라는 순수하고 통일된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범적인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 정책주도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해방기 정책주도세력이 형성하고자 했던 청년담론의 모습을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글과 익힘활동을 통해 구체적

(1): 현대시 체제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6집, 동남어문학회, 2013, 161~163쪽 참고. 임시교과서에 대해서는 김태웅, 「新國家建設期 教科書 政策와 運用의 實際」, 『역사교육』 제88집, 역사교육연구회, 2003, 79~80쪽 참고.

24) 제목 뒤에 글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지침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소수이다. 또한 익힘활동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으로 밝히고자 한다.

## 1. 민족국가의 토대 구축: 국어와 역사의 복원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파괴하고 그 자리를 왜풍으로 가득 채워 넣었던 식민지배로 인해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너진 민족정기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이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민족공동체 수립은 자라나는 청년세대에게 민족정체성을 불어넣는 교육으로 시작된다. 이와 같은 사정이 『중등국어교본』에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중등국어교본』은 민족이라는 상상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글들로 가득하며, 그 양상은 민족어인 국어에 대한 강조와 민족공동체의 과거 복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드러난다.

첫째, 민족어인 국어(國語)에 대한 강조다. 앞서 살펴보았듯, 국어는 당시 민족정체성과 동일시되었다. 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증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특히 조선어학회에 의해 강조되었다. 당시 조선어학회 구성원인 최현배는 조선교육심의회<sup>25)</sup>의 교과서 분과인 제9분과에 속하기도 했고, 당시 국정교과서 편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문교부 편수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조선어학회는 미군정에게 신뢰를 받으며 단독으로 국어교과서를 편찬하기도 한다.<sup>26)</sup> 물론 이는 당시 급박한 정세 속에서 시급하게 교과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전에 조선어학회에서 만들었던 교재를 다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군정과 조선어학회의 이와 같은 협력은 이후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는 국어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조선어학회를 주도세력으로 만들어주었을 것이다. 고로 국정교과서인 『중등국어교본』에는 국어와 그 표기체

25) 조선교육심의회는 본래 미군정청의 자문기구였지만, 사실상 준행정기구의 위상을 지니면서 교육정책 전반을 관장했다.(김용일, 앞의 책, 155쪽)

26) 「미군당국, 조선어학회에 교과서인쇄 협약」, 『매일신보』, 1945. 9. 17.(자료대만민국사 제1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인 한글을 민족정체성과 동일시하는 조선어학회의 관점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조선어학회의 국어에 대한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글이다.

한글이 문자로서의 과학적 가치가 있음과, 세계 문자 중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음은, 이제 더 말할 것이 없거니와, 이러한 것을 창제하기에 얼마나한 노력과 고심이 여복 들었을까를, 우리로서 다시금 한 번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게 된다.(이윤제, 「한글창제의 고심」)<sup>27)</sup>

「한글창제의 고심」(중)<sup>28)</sup>은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의 고심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지만, 위에서 보듯 이미 한글이라는 민족의 표기체계의 우수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이 글은 독자로 하여금 한글이 “과학적 가치가 있음과, 세계 문자 중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주시경」(상), 「국어와 국문학」(중), 「문자 이야기」(하)들도 모두 국어와 그 표기체계인 한글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글들이다. 또한 『중등국어교본』 전체 익힘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휘의 의미를 묻거나 표현의 정확성에 대해서 묻는 활동들인데, 이것 역시 한글을 익히는 것 자체를 중요시한 편찬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등국어교본』은 앞서 민족정체성과 동의관계인 국어와 한글을 강조하는 글과 익힘활동을 통해 청년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민족정체성을 갖추어 민족공동체 건설의 기초가 되도록 한 것이다.

둘째, 민족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고전문학, 역사, 전통, 유적 등에 대한 글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민족은 영구불멸의 공동체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영광스러웠던 기억을 복원해야 한다. 이는 특히 식민지배라는 굴욕의 역사를 지닌 민족이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민족이 지닌 과거의 복원은 역사적 사건의 강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전문학을 교육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27) 조선어학회, 『중등국어교본』 중, 군정청 문교부, 1947, 34쪽.

28)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글의 소재(所在)는 제목 뒤 괄호로 표시함.

외에도 민족이 가진 영원불멸성의 실제적 증거라고 간주되는 역사 유적들의 모습 제시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글들은 간접적으로 민족의 영원성을 청년세대의 상상 속에서 복원하고자 한다. 특히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간접적이지만 그만큼 자연스러운 방법이였다.

고전문학 작품들은 『중등국어교본』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sup>29)</sup> 고전문학 작품 외에도 고전문학에 대한 글로 조운제가 쓴 「국문학의 고전(1)」(하)과 「국문학의 고전(2)」(하)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일종의 고전문학 개론에 해당하는 글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어, 다시 옛날 조선의 문학에 대한 관념을 배울 필요가 있을 듯이 생각되거나, 옛날 조선의 문학인은 고전을 고전으로서 읽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 듯하다. (…중략…) 그보다는 차라리 고전을 현재의 생활에 끌어 넣어서, 현재 그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것이 고전 문학에 대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전은 자유로 그들의 손에, 현재 생활에 합치하도록 개찬되어 갔던 것이나, 여기에, 고전은 벌써 고전이 아니고, 늘 그들의 생활에 약동하는 신선한 현대의 문학으로서, 그들에 맞이하게 되었다.(조운제, 「국문학의 고전(2)」<sup>30)</sup>

이 글은 고전문학의 분류 및 해석의 어려움을 설명하는데, 특히 고전문학을 다루는 어려움을 설명한 후에 조선인들이 고전을 생활에 끌어들어서 즐겼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고전은 벌써 고전이 아니고, 늘 그들의 생활에 약동하는 신선한 현대의 문학으로서” 받아들여졌다고 기술한다. 글에 덧붙여진 익힘 문제도 “ㄷ. 고대 문학인의 문학에 대한 관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고전 문학 학습의 당위성을 학습자에게 강조하기 위해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중등국어교본』은 고전문학 이외에도 민족의 과거를 복원하기 위해 민족

29) 『중등국어교본』 상에는 14편(11. 「고시조」, 27. 「고시조」), 중에는 6편(30. 「산촌모경」, 39. 「고시조」), 하에는 8편(5. 「고시조」, 25. 「가신임」)의 고시가가 수록되어 있었다.

30) 조선어학회, 『중등국어교본』 하, 군정청 문교부, 1947, 172~173쪽.

의 전통이나 역사적 사건 및 제도에 대한 설명글을 수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행문을 통해 역사 유적, 고향 등 국토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글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이런 글들의 제재들은 ‘박물관화 되어 국가의 기장(紀章)’<sup>31)</sup>으로 청년들의 머릿속에 주입되었다.

「온돌과 백의」(상), 「신라의 화랑제도」(중), 「백제의 미술」(하), 「신라의 금철공예」(하), 「고려의 부도 미술」(하) 같은 글들은 우리의 전통 문화와 삼국 시대의 예술과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모두 과거 우리 선조들의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여를 찾는 길에」(중), 「안심사에서 상원암까지」(중), 「강서의 삼 고분」(중), 「불국사에서」(중), 「석굴암」(중)과 같은 글들은 찬란했던 민족의 과거를 증명하는 유적들을 둘러보는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그 외에 「회향」(중)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서술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적벽유」(하)와 같은 글은 여행기지만 앞서 보았던 유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국토에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글 외에도 「이순신과 한산도 대첩」(상)은 국난 극복에 주도적 역할을 한 영웅 이순신의 일대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팔월 십 오일」(상), 「그대들 돌아오시니」(하), 「포츠담 카이로 선언」(하)은 조국광복에 대한 감동을 고양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의 청년세대에게 민족 개념을 자연스러운 개념으로 내재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청년세대는 자신들이 민족이란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연스럽게 ‘상상’하였을 것이다.

## 2. 민족국가 재건의 주역이 갖춰야 할 미덕

해방 이후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은 강력했다. 이에 대한 열망은 다양한 건국단체와 정당의 창립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대중적 인식에서 새 민족국가 건설의 주역은 바로 ‘청년’들이었다. 이는 당시 청년단체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청년단체들의 강령 자체에 그들 자

31)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2, 232~233쪽.

신을 건국의 주역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sup>32)</sup> 당시 청년 단체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아마도 당시 청년들 본인들이 ‘건국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믿음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인식이 다양한 매체나 교육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부터 계속해서 형성되고 재생산되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로 발행된 『중등국어교본』은 이와 같은 건국의 주역으로서의 청년세대의 존재를 ‘재생산’함과 동시에 그들이 갖춰야할 미덕들을 각종 글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즉 청년세대는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특정한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등국어교본』에 제시된 미덕 중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미덕은 진취적 성향과 노력이다.

진취적 성향은 당시 어려웠던 해방 정국의 청년세대가 꼭 갖추어야 하는 미덕이었다. 「청년」(상)과 같은 글은 청년이라면 쾌활하면서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며, 「활발」(상) 역시 쾌활함을 강조하는 글이다. 현행 교과서에도 수록되고 있는 민태원의 「청춘예찬」(중)도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은 청춘의 누리는 바 특권”이라고 하며, 청년이라면 당연히 진취적으로 이상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상」(하)과 「이상의 실현」(하)에 좀 더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대저 우리 사람의 생활은, 이상의 생활이다. 이 이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며, 최귀한 지위에서 만물을 통어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 사람에게는 이상이 있음으로 하여, 독특한 문화가 창조되며, 문명이 건설되며, 고귀한 생활이 영위되며, 무한한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다. 이상은 실로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며, 인류 향상의 나침반이다. 아아, 이상의 인생에 대한

32)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청년당’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이 살포한 전단에는 “3천만 우리 민족의 久遠한 행복의 확립을 기하여 우리 청년은 가진 바 모든 才操와 힘과 열정을 기우려 건국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청년당, 同당의 창립준비총회 개최안내 전단 살포」, 『전단』, 1945. 9. 12.(자료대한민국자 제1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의의의 중차대함이어.(「이상」)<sup>33)</sup>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상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춰야하는 필수 조건이 된다. 이상은 문화 창조, 문명 건설, 고귀한 생활, 문화 발전의 필수 조건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고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동량이 될 청년세대가 이상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글들은 모두 이상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으며, 청년세대는 당연히 원대한 이상을 품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 외에도 「자중심」(중)이나 「조선의 영웅」(중)과 같은 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진취적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양주동의 「선구자」(중)는 “혼자서, 그러나, 용감스럽게 앞으로 나아간/의분에 피끓는 남아여! 순교자여! 영웅이어!”라고 하면서 앞의 이상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들은 청년세대에게 비록 해방 이후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상을 품으며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내재화한다.

앞서 보여주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상을 품고 나아가는 진취적 성향이 실제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은 착실히 노력함으로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착실한 ‘노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청년세대에게 요구되는 필수 덕목이 된다. 노력을 강조하는 글들은 『중등국어교본』 곳곳에 드러난다.

희망은 착실히 노력함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요, 요행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요행은 우연이요, 필연이 아니다. 저 활 쏘는 사람을 보라. 백발 백중하게 되는 것은, 착실히 수련을 쌓은 이의 할 수 있는 바이니, 요행을 바라는 이는 우연히 한번 정곡을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필연을 기필할 수 없는 것이다.(「청년」)<sup>34)</sup>

「청년」(상)은 진취적 기상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노

33) 『중등국어교본』 하, 71~76쪽.

34) 조선어학회, 『중등국어교본』 상, 군정청 문교부, 6~7쪽.

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힘을 오로지 함」(상)은 하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온 힘을 오로지” 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금일」(상)과 같은 글은 오늘 하루에 직면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 외에 「부지런」(상), 「성공」(상), 「친목과 경쟁」(상), 「운명과 노력」(상)도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운명과 노력」(상)은 모두들 타고난 운명이 다르지만 “사람은 각각 지덕을 함양하고 의지를 단련하며,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며 운명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해방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 탓을 하지 말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글들은 모두 이상과 노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을 품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빈 칸에는 해방기라는 특수한 상황상,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글을 통해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헌신이 들어갈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적인 미덕 외에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미덕도 『중등국어교본』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개인적인 미덕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나 사회적 윤리 의식도 갖추어야만 한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해방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끊임 없는 헌신의 요구로 이어졌을 것이다.

자기의 기능, 노력, 재산, 기타 무엇이든지 사회에 조그마한 공헌, 조그마한 비익이 될 것이면 이것을 제공하고 희생하여 사회에 봉공하자. 그리하여 성공 불성공은 다만 운명에 맡기고, 남이 조소하든지 우롱하든지 우리는 그저 충성스럽게 끝까지 활동하자. 진력하자. 이것이 우리의 본무요 천직일 것이다.(조만식, 「청년이여 앞길을 바라보라」)<sup>35)</sup>

35) 『중등국어교본』 상, 9쪽.

조만식의 「청년이여 앞길을 바라보라」(상)는 청년들이 굳센 의식과 절제하는 생활을 갖추며 동시에 “희생하여 사회에 봉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개인의 성공 여부는 운명에 맡기고 사회에 “충성스럽게” 공헌하는 것이 “우리의 본무요 천직”임을 강조한다. 특히 이 글의 경우 익힘 활동으로 “ㄴ. 우리나라가 시급히 바라는 일을 말하고, 그 일을 이루자면 무얼 해야겠느냐?”와 “ㄷ. 제 자신을 돕는 일로서 세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느냐?”와 같은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등국어교본』은 다양한 글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물의 이용」(상)과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대부분 자연물을 이용한 과학 지식을 강조하는 글이지만 결국 이런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데 있어 “사리사욕에 관한 것은 제가꿈 안분하여야 하겠지만, 공리공익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경솔히 만족을 느껴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인격 완성과 단결훈련」(중)은 조국 광복을 위한 조선청년들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라의 화랑 제도」(중)도 신라라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화랑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동체에 헌신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익힘 활동도 “ㄴ. 아래에 적은 사람(관창랑, 흠운랑, 검군)의 사적을 말해 보라”라는 질문을 제시해 그들의 헌신적인 행동을 학습자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사회의 조직」(상), 「아름다운 풍경」(중), 「사회적 의식」(하)과 같은 글들은 사회적 공동체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공동체의 개념을 청년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주입하고 있다. 특히 박태원의 「아름다운 풍경」의 경우, 곳은비가 내리는 역에서 내리는 이를 위해 그 가족들이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광경을 작가는 “그들에게 부디 행복이 있으라 빌며, 자주는 가져 보지 못하는 감격”을 가지고 지켜본다. 이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글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 외에도 사회적 윤리나 규범의 준수를 강조하는 글들도 수록되어 있다. 해방 당시의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윤리와 규범을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새로운 민족국가의 구성원이 될 청년

세대에게 사회적 윤리와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더욱 강조되었을 것이다.

「용기」(상)와 「예의」(중)와 같은 글은 사회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용기」의 주 제제는 ‘날램’이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을 통해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옳음을 함이 큰 날램이외다. 그름을 아니함이 또한 큰 날램이외다. 옳은 일에 몸과 목숨을 버리되 싫다 아니함은, 가장 기린만한 날램이외다. 그 대신 그런 일에는 눈과 마음을 두기만 하여도, 이것이 가장 날램 없는 일이외다.(「용기」)<sup>36)</sup>

이처럼 날램을 강조하는 기저에는 “옳음을 함”, 즉 사회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 바탕인 것이다. 「예의」의 경우도 “겸손, 사랑, 공경 같은 도덕적 정조가 없으면, 물질적으로 훌륭하고 형식적으로 만점일지라도 예의 본색이 없는 수가 많다”라고 하며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도덕과 법률」(중)은 도덕과 법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의 질서」(중)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디까지든지 자률적으로 이러한 규범을 존중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사회규범의 자율적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공중과 위생」(중)은 처음에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규율을 지켜야만 공중의 위생을 지킬 수 있다며 사회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중등국어교본』에서 청년세대에게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구했던 미덕들은 수록된 전기문의 위인들에 의해 종합되고 구체화된다. 「발명왕 에디슨」(상)과 「주시경」(상), 「발명가 스티븐슨」(중)은 모두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노력하여 성취를 이룬 인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취가 사회적인 공헌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특히 주시경 선생의 경우 한글 연구를 통해 민족국가에 커다란 기여를 한 인물이다. 「차취 없던 산

36) 『중등국어교본』 상, 68쪽.

길』(중)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울드 아문젠에 대한 이야기로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탐험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알렉산더의 말」(중)은 아무도 길들이지 못한 말을 길들이는 일에 도전하는 알렉산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렉산더의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약용」(하)은 정약용의 사회적 공헌이 강조된다. 익힘 활동에도 “ㄱ. 정 다산이 천주교 서적을 읽음은 무슨 까닭이었던가?”와 같은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뜻은 신학의 사상을 참작하여 사회, 국가를 교화 선도하려 함이었다”라는 답을 유도하고 있으며, “ㄴ. 정 다산의 저서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다룬 저서를 다산이 집필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등국어교본』은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가 지녀야 할 자격을 대체로 설명문과 논설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sup>37)</sup> 그 내용은 진취적 성향, 근면과 노력, 공동체에 대한 헌신, 사회적 윤리와 규범의 준수로 제시되었다.<sup>38)</sup> 청년세대에게 이와 같은 미덕들을 갖추도록 한 것은 해방 직후의

37) 대부분은 설명문과 논설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지만, 『중등국어교본』 상의 27. 「고시조」의 경우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시조의 경우는 대체로 민족전통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해당 단원의 경우 고시조는 대체로 인내, 지조, 노력, 윤리적 삶, 근면, 진취적 기상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익힘 활동도 앞의 11. 「고시조」의 경우 사전에 제시된 질문으로 고시조를 통해 ‘우리는 예전 사람들이 좋아하던 풍정을 맛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7. 고시조」의 경우는 해당 시조의 내용 자체를 묻는 ‘이상 시조들을 한수마다 그 무슨 뜻인가를 대강 적어보라’라는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작품이 나타내는 미덕들을 강조하고 있다.

38) 위에서 다루지 않은 글 중에 『중등국어교본』 상의 「설 처녀의 정절」과 같은 글은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에 군역을 진 가실이란 젊은이에 대한 설 처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 이야기는 가실이 군역을 나간 사이에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설 처녀를 강제로 결혼시키려는 아버지가 나오며, 결국에는 가실이 돌아와 설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정략 결혼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이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이 가능한 전제는 설 처녀가 정절을 지켰다는 부분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미덕과는 다른, 당시의 젊은 여성들에게 강조되는 미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제의 식민지 경제 수탈로 인한 가난과 미군정으로 인한 자주 독립의 좌절 등으로 해방 직후의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국가 건설의 주역이 되어야 할 청년들에게 일종의 ‘정신교육’이 필요했다. 앞서 살펴본 모든 미덕들은 비록 힘들고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을 금하고, 오로지 공동체를 위한 헌신만을 강조한다. 결국 『중등국어교본』은 혼란스런 해방정국 속에서 민족국가 건설에 헌신할 수 있는 정책주도세력이 원했던 이상적인 청년상을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통일된 순수한 공동체로서 민족국가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은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좌익과 우익의 사상적 대립으로 인해 민족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후 한반도 이남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된다. 이는 문학 또한 마찬가지였다. 문학인들은 조선문학가동맹과 전조선문필가협회로 나누어져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좌와 우가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민족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게 국정교과서는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등국어교본』은 논쟁 자체가 소멸된 가상의 순수한 공동체를 보여주기로 결정한다. 이런 방향 설정은 현실적으로는 민족이 좌와 우로 대립하고 있지만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 청년세대에게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추고 민족의 단합된 모습만을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와 같은 교과서 편찬 방향은 순수하며 균형 있는 중립성을 보여주는 듯싶어도 사실은 그러한 중립 그 자체가 하나의 편향이라는 점은 간과한 것이었다.

먼저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좌익 작가의 작품들에서 이데올로기적 순수화 작업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중등국어교본』은 당시 좌와 우에 균형적인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 교과서의 편집을

맡고 있던 가람 이병기의 균형 감각이 드러난 교과서로 알려져 있다.<sup>39)</sup> 실제로 작가 분포를 보면 좌우익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40)</sup> 하지만 실제로 교과서에 수록된 글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좌익 작가들의 작품들은 이데올로기적 순수화를 위해 작품의 제목을 변경하거나 작품의 일부분만 수록하기도 한다.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채만식의 「금강」(상)과 이기영의 「원터」(상)가 대표적인 사례다. 「금강」은 채만식의 『탁류』의 일부로 금강에 대한 묘사만을 떼어낸 것이고, 「원터」는 이기영의 『고향』의 일부로 소설의 배경이 되는 원터에 대한 묘사만을 따로 떼어내 수록한 것이다. 또한 좌익 계열의 시인이었던 조명희와 이병철의 경우 그들의 작품 중 계급성과 당파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이」(상)와 「나막신」(상)만이 수록되어 있다.

문학 작품 이외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좌익 계열의 대표 비평가인 이원조의 경우 『중등국어교본』에 「팔월 십 오일」(상)과 「회향」(중)이 수록되어 있다. 「팔월 십 오일」의 경우 광복의 감명만을 서술하는 글이며, 「회향」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을 그리는 모습을 서술한 글이다. 모두 계급성이나 당파성이 드러나지 않는 글들이다.

좌익 작가들의 작품에 붙어 있는 익힘 활동들은 계급성과 당파성을 거세하는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930년대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했다고 평가받는 『탁류』의 일부분인 「금강」에는 익힘 활동으로 “금강의 가장 고운 대목은 어디가?”가 제시되어 있다. 카프 문학 최고의 성취라고 평가받던 『고향』의 일부를 수록한 「원터」의 익힘 활동은 “원터의 봄 풍경은 어떠하였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나막신」의 경우 익힘 활동 자체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경이」의 경우 특정 구절의 의미만을 묻는 질문을 제시하

39) 강진구, 「문학 텍스트의 정전화 과정과 문학권력」, 『한국 문학권력의 계보』, 문학과학비평연구회 엮음,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55쪽.

40) 강진호, 「반공주의 규율과 ‘국어’ 교과서-1946~1954년의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 연구』 28권, 민족문학사학회, 2005, 361쪽.

고 있다. 물론 애초에 제시된 지문 자체가 이런 활동 외에는 불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익힘 활동은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문학 작품 전반에 나타난다.<sup>41)</sup>

이와 같은 『중등국어교본』의 이념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편집을 맡은 이병기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등국어교본』 편찬 방향에 대해서 이병기 개인의 비중을 너무 높게 두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병기 개인의 위치와 이념적 지향성만이 『중등국어교본』의 이념적 중립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시 중등 국어 교본 집필의 기초 위원은 이승녕, 이태준, 이희승이었다.<sup>42)</sup> 이처럼 좌우 인사가 모두 참여한 집필 기초 위원들의 구성 자체가 『중등국어교본』의 이념적 중립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지식인들의 해방기에 대한 자세가 민족화합에 초점을 두고 좌우익에 대한 충돌은 되도록 억제 혹은 자제해왔다는 분석<sup>43)</sup> 또한 단순히 『중등국어교본』의 중립적인 글의 수록 경향이 이병기의 의사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무게를 실어 준다.

좌익 작가의 작품 이외에도 순수한 공동체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중

---

41) 『중등국어교본』 하에 수록된 「은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은실」이 수록된 단원의 제목 밑에는 앙드레 지드가 “십 오 세 때 적은 “밀 한 알”이라는 유명한 소설의 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 이 글은 앙드레 지드의 자서전인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의 일부분이다(앙드레 지드, 차혜주 역,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을지출판사, 1987, 147~154쪽). 이는 편찬자들이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교과서 자체에서 이를 소설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단원의 경우 다른 소설을 다룬 단원들과는 다른 익힘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소설들에서는 소설의 묘사 기법이나 묘사된 대상에 대한 감상을 묻는 질문이 많았지만, 「은실」의 경우 “그. 화분에 그라디오라스를 심어 두고 무슨 재미를 보았을까? 그 관찰하는 법은 어떠하였던가?”, “나. 그러다가 왜 쥐를 사랑하였을까? 그리고 쥐 구멍에 끓는 물을 끼얹을 때 어떻게 질문을 하였던가?” 모두 소설의 내용을 묻는 질문이 제시되었다.

42) 조선어학회, 『초등국어교본 한글教授指針』, 군정청 학무국, 1945, 2~3쪽.

43) 임현영, 「해방직후 지식인의 민족현실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2』, 강만길 외, 한길사, 1985, 463쪽.

『중등국어교본』 곳곳에 드러난다. 『중등국어교본』 각 권에 수록된 고시조의 경우, 앞서 지적했던 민족의 전통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작품들을 제시하고 있다. 『중등국어교본』 상에 제시된 방정환의 「어린이 예찬」은 어린이의 순수함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좌익 작가의 작품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글들은 계절, 날씨, 자연 등을 주제로 하여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있다.<sup>44)</sup> 이 글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은 학습자들에게는 매우 추상적인 세계이다. 이렇게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강조하게 되면 그 이전의 민족의 수난사나 당시의 혼란스런 정국은 잊혀지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중등국어교본』은 집필진 자체만을 보면 좌와 우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춘 것처럼 보인다. 또한 작품을 수록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묘사가 주로 반영된 부분만을 수록하거나 계절, 날씨 등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글만을 수록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마도 당시 이념적으로 분열되고 있던 민족의 현실을 이후의 단일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했던 청년세대에게만큼은 감추고 싶었던 당시 교과서 편찬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등국어교본』의 편찬 방식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하거나 결코 편향되지 않은 방향으로 집필된 것이 아니었다. 작품의 수록 방식과 익힘 활동을 분석했을 때, 『중등국어교본』은 순문학주의나 미문주의적 경향을 청년세대가 내재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의 순수함만을 내세운 글을 통해 민족의 수난사나 당시의 혼란스런 정국을 직시할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 있었다. 이는 당시 청년세대가 자신들이 속하게 될 민족공동체가 어떤 균열도 없는 멸균실과 같은 상태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44)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글들은 다음과 같다. 상권의 경우 「봄·비 오는날」, 「비·소리」, 「화단을 바라보면서」, 「첫여름」, 「비·간·여름·아침」, 「파초·난초」, 「우리 집 정원」, 「낙엽」, 「벌레 소리」, 「일초일목에의 사랑」. 중권의 경우 「청추 수제」, 「사 온일」, 「자연과 인생」, 「물」, 「마음·아차산」, 「녹을 애송시」, 「산촌 모경」, 「그 은행나무」, 「건란」. 하권의 경우 「목련화 그늘에서」.

## IV. 결론

해방기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민족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어는 민족정체성과 동일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민족어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국어교과에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가장 중요한 민족국가 구성원 양성의 임무를 부여한다. 국어교과서는 그 구체적인 실행도구였다. 특히 국정교과서는 당시 정책주도세력이 육성하고자 했던 새로운 민족국가의 구성원의 모습을 투영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본고는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글들을 통해 당시 정책주도세력이 형성하고자 했던 청년담론을 밝히고자 했다.

『중등국어교본』에 수록된 다양한 종류의 글을 검토해 본 결과, 국정교과서라는 제도를 통해 당시 정책주도세력이 형성하고자 했던 청년담론은 세 가지 방향으로 드러났다.

첫째, 새로운 민족국가 수립의 기초로서 민족 전통과 문화를 복원하고자 했다. 36년의 식민지배로 우리 민족 깊숙한 곳에 심어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이전의 민족의 전통과 민족의 주체성을 다시 복원해야만 했다. 이는 이후 민족국가의 구성원이 될 청년들에게 민족국가의 구성원임을 당연하다고 여기게 해줄 상상을 불러넣는 과정이었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민족어의 위치에 오른 국어와 그 표기체계인 한글을 강조하는 것과 민족의 과거라 할 수 있는 문화, 역사, 유적 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둘째, 민족공동체 재건의 주역이 갖추어야만 하는 미덕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민족국가의 구성원은 민족의 일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미덕을 갖추어야만 했다. 『중등국어교본』은 다양한 글을 통해 이런 미덕을 간접적으로 청년들에게 전달했다. 그 미덕으로는 진취적 성향, 노력, 공동체에 대한 헌신, 사회적 윤리 등이 있었다. 특히 앞서 제시된 미덕들을 전기문이란 형태를 통해 종합하고 구체화적으로 제시했다.

셋째, 민족공동체를 균열이 없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한 공동체로 제시

했다.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단합하여 단일한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했지만 좌우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분열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비록 현실은 이러했지만, 교과서 편찬자들은 통합된 민족의 미래를 꿈꾸며 청년들에게는 단합되고 순수한 민족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으로 취한 것이 특정 정파에 편향되지 않도록 글을 수록하고, 자연의 순수함에 대한 글을 다량 수록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겉으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화를 이룬 것으로 보였지만, 애초에 이데올로기적 순수화 자체가 또 다른 편향이라는 점은 간과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중등국어교본』은 당시 정책주도세력이 형성하고자 했던 청년담론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청년담론은 당시 청년들이 현실의 혼란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신해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했다. 또한 순수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함으로써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이는 현재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담론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중등국어교본』에 드러난 청년세대의 미덕에 대한 담론은 현재의 ‘노오력’ 담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민족공동체에 대한 담론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순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화는 레드콤플렉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해방기의 청년담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록 해방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이후 전쟁기에 이르는 국어교육의 담론을 분석해 나간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 형성된 청년담론의 기원을 온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조선어학회, 『중등국어교본』 상, 군정청 문교부, 1946.  
\_\_\_\_\_, 『중등국어교본』 중, 군정청 문교부, 1947.  
\_\_\_\_\_, 『중등국어교본』 하, 군정청 문교부, 1947.  
\_\_\_\_\_, 『초등국어교본 한글教授指針』, 군정청 학무국, 1945.

『동아일보』, 『조선일보』, 『자유신문』 등의 신문매체

### 2. 2차 자료

-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강진구, 「문학 텍스트의 정전화 과정과 문학권력-미군정기 중등국어 교과서의 선택과 배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권력의 계보』, 문학과 비평연구회 엮음,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41~77쪽.  
강진호, 「반공주의의 규율과 “국어” 교과서: 1946~1954년의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 연구』 28권, 민족문학사학회, 2005, 352~383쪽.  
김용일, 『미군정하의 교육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9.  
김태웅, 「신국가건설기 교과서 정책과 운용의 실제」, 『역사교육』 제88집, 역사교육연구회, 2003, 71~97쪽.  
김혜정(2004), 「해방 직후, 국어에 대한 인식 및 교과 형성 과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8권, 국어교육학회, 129~169쪽.  
문혜윤(2015), 「텍스트의 재발견과 한국 문학의 정전 형성 과정: 해방기 국어 교재를 통해 본 국어와 정전의 형성」, 『우리어문연구』 51권,

- 우리어문학회, 2015, 73~101쪽.
- 박용찬, 「국어교재에 넘나든 현대시 텍스트의 경계와 검열」, 『국어교육연구』 제54집, 국어교육학회, 2014, 53~78쪽.
- \_\_\_\_\_, 「한국전쟁 이후 현대시의 국어교과서 정전화(正典化) 과정 연구」, 『어문학』 제91집, 한국어문학회, 2005, 413~435쪽.
- \_\_\_\_\_, 「한국전쟁 직전 국어교재에 실린 문학텍스트의 구성담론과 국가주의 시선으로의 이동」, 『어문학』 제119집, 한국어문학회, 2013, 223~253쪽.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2.
- 송건호 외, 『해방진후사의 인식1』, 한길사, 2004.
- 앙드레 지드, 차혜주 역,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을지출판사, 1987.
- 이길상 외 엮음, 『한국교육사료집성 미군정기편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이순욱, 「광복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1): 현대시 체계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6집, 동남어문학회, 2013, 161~163쪽.
- 이연숙, 고영진·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 : 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소명출판, 2006.
- 이용호, 『미군정기의 한글운동사』, 성철사, 1974.
- 정영훈, 「미군정기 국어 교과서의 편찬 과정 재론 -조선어학회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배달말』 50권, 배달말학회, 2012, 197~222쪽.
- 차혜영, 「국어 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 1차~4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상허학보』 제15집, 상허학회, 2005, 99~128쪽.

【Abstracts】

## Korean Language Textbook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nd Young generation Discourse

-Centered on the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s

Choi Yang-woo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tangible aspects of the young generation discours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through the national Korean textbooks published in that period.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the Korean language gained the status of national language and became synonymous with the national identity. Based on this assumption, this study examines the young generation discourse that policy-led entities sought to shape through the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s.

Looking at the text in the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s, the young generation discourse at that time may be revealed in three directions. The first direction was to restore tradition and traditional culture, which is the basis of establishing a new nation state. The second direction was to present the virtues that leaders of reconstructing national community should have. The third direction is to present the ethnic community in pure unity.

Key words : Korean Language Textbooks in the liberation perio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liberation period,  
Middle school Korean textbooks, young generation  
discourse, young generation

이 논문은 2017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3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3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